

AUTHOR 정원범

TITLE 갈뱅신학의 특징과 오늘의 의미

IN 신학과 문화

vol.1 (2, 1992): 51-82

# 갈뱅신학의 특징과 오늘의 의미

정 원 범(조직신학, 기독교윤리)

## I. 들어가는 말

갈뱅은 종교개혁의 제2세대의 인물로서 중세로마 천주교회의 교리와 복잡한 의식들로 인해 흐려졌던 복음 메시지를 새롭게 재발견하여 종교개혁의 기치를 드높였던 마틴루터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종교개혁 신학사상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했던 종교 개혁의 완성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독창적 사상가였다면, 갈뱅은 종교개혁의 체계적 완성자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루터와 갈뱅이 다같이 개신교 신학의 초석을 놓았던 대표적인 신학자이였으나 루터의 사상이 루터교회 신학의 뿌리가 되었다면, 갈뱅의 사상은 개혁교회 신학(또는 장로교회)<sup>1)</sup>의 뿌리가 되었다.

따라서 개신교 신학 특히 개혁교회의 신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

<sup>1)</sup> 개혁교회라 할 때, "개혁"이란 용어는 개혁교회들에 의해 주장된 신학 체계를 일컫는 말인 반면, "장로교"라고 할 때는 그러한 교회들이 교수하는 교회의 정치체도와 교회 행정을 일컫을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하달리, 개혁신학개론, 형성사, 1990, p.13).

해서는 개혁신학의 원조인 갈뱅의 신학을 살펴보는 것이 필연적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본고에서는 갈뱅신학의 중심원리의 문제를 살펴본 후, 그의 신학 특징을 다섯가지로 정리하여 봄으로써, 개혁교회의 신학적 특징을 확인하고 나아가 갈뱅신학이 오늘의 신학적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 보고자 한다.

## II. 갈뱅신학의 중심 원리

갈뱅이 종교개혁 기간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작품으로서 개신교 2000년 역사를 통해 불후의 역작으로 알려진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위대한 조직 신학자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그를 종교개혁 신학사상을 체계화했던 조직신학자라고 할 때 첫번째 제기되는 질문은 그의 신학에 중심 원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동안 갈뱅 연구자들이 저마다 이 중심 원리를 찾아 내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한 아직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두가지 입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갈뱅신학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여기서 첫째 입장의 수정된 형태를 지적할 수 있는데, 곧 “중심적으로 중요한 교리”를 발견하려는 입장이다.

둘째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주제든지 “중심적으로 중요한 교리”든지 그것을 발견하려는 접근방법은 갈뱅신학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아니며 심지어 무익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sup>1)</sup>

<sup>1)</sup> Richard C. Gamble, “Calvin as Theologian and Exegete: Is there Anything New?”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23, No.2, Nov.1988, p.186~187.

먼저 갈뱅신학에 하나의 중심원리가 있다고 보는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자. 헤르만 베버는 갈뱅신학의 전체사고구조를 형성하는 최상의 원리가 있다고 한다. 이 원리란 전혀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영혼 깊숙히 숨어 있는 체험이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sup>2)</sup> 오토리츨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상은 갈뱅신학 전체를 꿰뚫고 있으며 또한 갈뱅신학 이해의 마지막 열쇠이다. 이러한 하나님 개념과 연결된 예정교리가 그의 신학체계의 정점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모든 것은 여기서 연역된다.<sup>3)</sup> F.W 캄프스테 같은 사람도 갈뱅의 신학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연역되어진 하나의 체계라고 간주한다.<sup>4)</sup>

그러나 바우케나 위펠드 등 많은 사람들은 예정교리가 갈뱅주의의 중심 교리라는데 반대한다. 위펠드는, “예정론은 갈뱅주의의 형성 원리가 아니다. 다만 그것은 그 형성 원리의 논리적 연관을 지닐 뿐이다. 그것은 갈뱅주의가 생겨 나오는 뿌리가 아니고 그 형성 원리가 필연적으로 싹트게 했던 가지들 중에 하나이다.”<sup>5)</sup>라고 주장한다. 바우케도 주장하기를 “리츨 시대 이래로 모든 루터교도와 개혁교도도 연구자들이 의견을 같이 한 것 처럼 예정교리는 갈뱅주의가 아니다.”<sup>6)</sup>라고 한다. 예정론이 갈뱅사상의 중심원리가 아니라고 한 위펠드는 “갈뱅주의의 중심실체 (central fact)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다. 결정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다. 그것이 애써 하려고 하는 바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권리를 되돌리는 것이다. 갈뱅주의는 바로 여기서

<sup>2)</sup> W.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83, p.12

<sup>3)</sup> Ibid., p.15.

<sup>4)</sup>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p.29.

<sup>5)</sup> B.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1, p.489.

<sup>6)</sup> H. H. Meeter,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alvinism, 신복윤 역, 칼빈주의의 근본원리, 성광문화사, 1990, p.60 재인용.

시작하고 거기에 중심을 맞추며 거기서 끝을 맺는다”<sup>7)</sup>고 주장한다.

쿠스탕스도 워필드와 의견을 같이 한다. 그에 따르면, “예정론은 칼뱅주의와 밀접히 관련되어져야 한다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칼뱅주의의 한 국면일 뿐 중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권적 은총 교리안에 있는 논리적 요소이다. 그러나 그것은 원인이기 보다 결과이다.”<sup>8)</sup>

알렉산더 슈바이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인간의 절대존의 감정이 개혁신학의 특별한 실질 원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바우르는 개혁신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절대인과율 사상이라고 주장한다.<sup>9)</sup> 또한 헤페처럼 신중심적인 창조와 구속의 개념에 근본원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랑(A. Lang)처럼 예정과 이신칭의의 두 개념이 칼뱅주의를 형성하는 원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sup>10)</sup>

그런가 하면 헨리미터는 “칼뱅의 신학적 활동의 중요성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놓는데 있다. 칼뱅의 모든 개별적 문제들은 하나님의 개념에서 절정을 이룬다”는 칼 홀의 말의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개념이 바로 칼뱅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사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말하기를 “연구자들이 기본원리가 하나님의 주권임을 발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뜻 혹은 특별히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라는 개념 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종속된 것임을 발견하든지 간에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칼뱅주의자들의 사고의 기본으로 간주된다”<sup>11)</sup>고 한다.

<sup>7)</sup> Warfield, op. cit., p.502.

<sup>8)</sup> Arthur C. Custance, *The Sovereignty of Grace*,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칼빈의 교리신학, 기독교문화협회, 1986, pp.110-111.

<sup>9)</sup> John H. Leith, op. cit., p.28.

<sup>10)</sup> H. H. Meeter, 신복윤 역, op. cit. pp.32-33.

<sup>11)</sup> H. H. Meeter, 신복윤 역, op. cit., p.49.

리스(Leith)는 칼뱅의 중심원리를 기독교 강요의 서두의 내용에서 발견하여 말하길 “칼뱅의 말들은(Inst. I. 1.1, I. 1. 2) 그의 신학을 결합시키는 주제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관계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임을 제시한다”<sup>12)</sup>고 주장한다. 그는 칼뱅의 신학을 바퀴테가 없는 마차 바퀴에 비유하면서 바퀴를 결합시키고 바퀴살들이 뺏어 나가게 되는 중심추는 있지만 완벽한(self-contained) 질서로 정돈시키는 외곽의 바퀴테는 없다고 말한다.<sup>13)</sup> 여기서 바퀴의 중심이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를 의미한다면, 바퀴살들은 이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사도들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각각의 바퀴살(각각의 주제 또는 그것들에 대한 해설의 다양한 시도)이 뺏어나오는 중심추(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 관계)는 있지만, 그 각각의 살들을 다른 살에 완전하게 연결시켜 주는 외곽의 바퀴테는 없다는 것이다. 리스에 따르면, 칼뱅이 인간의 책임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주되심(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지만 그것들을 조직적인 통일성으로 결합시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 좋은 실예이다. 칼뱅에 있어서 다양한 설명들은 조직적 통일을 이루고 있지 않지만 그 각각의 중심적 통일을 이루어 주는 내적 통일성은 있다는 것이 리스의 주장이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 개념으로 본 리스의 견해는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피터 바르트 같은 사람이 “인간이 살아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성서적인 전제가 칼뱅의 기독교 강요의 고유한 생명적 중추이다”<sup>14)</sup>라고 주장한 바 있다.

R. C.갬블도 P. 바르터나 리스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는 주장하길, “칼뱅의 사고의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중적 지식이다. 칼뱅연구자들은 칼뱅의 이 기본적 전제가 그의 신학의 하나의

<sup>12)</sup> John H. Leith, op. cit., p.16.

<sup>13)</sup> Ibid.

<sup>14)</sup> W. Niesel, 이종성 역, op. cit., p.16

지배원리 또는 유일한 지배원리로서 간주되어야 한다는 데에 점차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sup>15)</sup>고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칼뱅신학의 중심원리를 신론에서 찾으려는 일반적 경향에 대해 이장식교수는 비판하길 “신론이 칼뱅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순서로서 신론을 먼저 논하고 차례로 다른 제목들을 논하여 간 것이지 신론이 여타의 다른 모든 주제들을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다”<sup>16)</sup>라고 말한다. 계속해서 그는 “칼뱅의 신학에서 신론이 중심이라기 보다, 하나님에 대한 칼뱅의 존경심이 그의 신학의 전체의 기초를 이루며 그의 신경전은 스킨라주의적이나 교리주의적인 신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칼뱅의 예배와 순종에서 생긴 것이었다”<sup>17)</sup>고 주장한다.

한편 니젤과 바울 야콥스 같은 사람들은 칼뱅신학의 지배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니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칼뱅신학 사고의 내용과 형식을 지배한다”<sup>18)</sup>는 것이다. 그러나 리스는 니젤의 연구가 시사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은 칼뱅 사고의 다른 국면들을 전적으로 무시한다고 비판한다.<sup>19)</sup>

이외에도 종말론이 칼뱅주의 전체에 대한 해석의 기초요 중심교리라고 하는 마틴 슈체(Martin Schulze)의 의견<sup>20)</sup>등 그 중심 원리에 대한 견해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칼뱅신학에서 그 중심원리를 찾는 것이 다양하다는 사실은 그 작업자체가 그 만큼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하기 까지 하다는 이야기가

<sup>15)</sup> Recharad C. Gamble, “Calvin as theologian and exgete : Is there anything new?”,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23, No.2, Nov. 1988, op. cit., p.180.

<sup>16)</sup> 이장식, 교회의 본질과 교회개혁, 대한 기독교서회, 1988, p.131.

<sup>17)</sup> Ibid.

<sup>18)</sup> Niesel, 이종성 역, op. cit., p.243.

<sup>19)</sup> J. H. Leith, op. cit., p.33.

<sup>20)</sup> Ibid., p.29.

될 지 모른다. 그래서 두번째 입장도 만만치 않은 주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로, 칼뱅신학에 중심원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바우케는 칼뱅이 해의 열쇠는 어떤 개별 내용의 요소나 칼뱅적인 교리의 어떤 요점이나 모든 다른 교리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심 교리나 근본교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sup>21)</sup> 그에 따르면 칼뱅은 한 두가지의 의미 내용을 지닌 원리에 의해서 사변적인 신학을 인출하는 체계론자가 아니었다. 그는 칼뱅의 교리 안에 형식구성의 세가지 본질적 특징을 구분한다. 첫째는 형식적인 합리주의를 말한다. 칼뱅은 형식적인 변증법을 가지고 그의 신학의 내용을 지배한다. 둘째 특징은 대립되는 것의 복합이다. 셋째는 성서주의이다. 이는 형식적 성서주의로서 근본적으로 교의학이 성서의 자료를 설명해야 한다는 그러한 원리를 말한다.<sup>22)</sup>

후크마도 칼뱅신학에서 근본원리를 찾으려는 시도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실패 끝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sup>23)</sup>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위엄 또는 선택론 등에서 칼뱅 신학의 근본원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이런 주장들의 난점은 칼뱅이 하나님의 주권 못지 않게 인간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칼뱅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반대되는 것들의 결합”이라는 바우케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다위가 표명한 다음과 같은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한다.

“칼뱅은 성경의 개별 주제들의 이해 가능성과 높은 정도의 명료성을 철저히 확신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비에 철저히 복종한 결과 전체의 합리적 논리성보다 많은 논리적 불일치들을 포함하는 신학을 만들어 냈다... 개별 주제들의 명료성, 그 주제들의 상관관계의 불가해성—이것이

<sup>21)</sup> Niesel, 이종성 역, op. cit., p.10.

<sup>22)</sup> Ibid., p.11.

<sup>23)</sup> Anthony A. Hoekema, “The covenant of Grace in Calvin’s Teaching”,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2, No.2, Nov. 1967, p.134.

칼뱅신학의 특징(hallmark)이다”<sup>24)</sup>

그래서 후크마는 칼뱅에 충실하려는 신학은 논리가 결정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꺼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른레(P. Wernle)같은 사람도 칼뱅의 신학을 사상의 일정한 체계로 보지 않고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총집성한 것이라고 본다. 그는 주장하길, “칼뱅은 항상 특별한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각 중요 문제를 취급하고 한 체계적 속박을 전연 몰랐다”<sup>25)</sup> 그러나 그는 다른 한편에서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칼뱅 신학은 처음부터 실제로 중심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하여 모든 방면에 일관하여 관찰하려는 것은 은총의 사상이었다.”<sup>26)</sup>

알프레드 필러는 “칼뱅신학에는 중심 교리가 없고 모든 교리들의 각각 자기 입장에서 독립된 중심적인 것을 항상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심 교리가 있다”고 역설적인 주장을 한다.<sup>27)</sup>

벵델은 주장하길, 어떤 한가지 중심 이념이 칼뱅신학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개혁자에 있어서는 대체로 여하한 체계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는 성서의 여러가지 진리를 서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체계를 발견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칼뱅의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결정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sup>28)</sup>

지금까지 우리는 칼뱅신학에 중심원리나 교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두가지 입장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타당한 하나의 입장을 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베른레의 상반된 주장이나 필러의

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은 양자의 주장이 모두 어느 하나를 간단히 무시해 버릴 수 없는 각각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칼뱅신학의 중심원리 문제와 관련하여 양자의 입장이 가지는 타당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견해는 무엇인가?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견해가 있다면 그것은 리스의 입장이 아닌가 여겨진다. 요컨대 칼뱅의 신학은 바퀴의 살(각각의 주제들에 대한 설명)들을 상호적으로 완전한 합리적 논리성의 체계로 묶어주는 외곽의 바퀴테는 없지만 그 바퀴의 살들을 뺄어나가게 해주는 중심추(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는 있어서 칼뱅신학이 전체적으로 내적 통일성을 갖고 있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한 리스의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칼뱅 신학의 특징

그러면 이제부터 칼뱅신학에 중심개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중심 개념에서 개별 주제들로 그의 신학내용이 확장되어 나가면서 나타나는 그의 신학의 특징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 1. 하나님 중심의 신학

칼뱅의 신학사상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근본 특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칼뱅 신학의 출발점은 그의 회심에 의해 이루어졌던 하나님 체험이었다. 그때 이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정신과 마음과 삶이 모두 그의 하나님 사상에 의해 생기를 얻었고,

<sup>24)</sup> E.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pp.39-40. Anthony A. Hoekema, *op. cit.*, p.135.

<sup>25)</sup>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복음주의 신학총서 27권, p.68 재인용.

<sup>26)</sup> *Ibid.*, p.70.

<sup>27)</sup> Niesel, *이중성 역*, *op. cit.*, p.17.

<sup>28)</sup> *Ibid.*, p.20.

그것에 의해 다스림을 받았고 그것으로 충만했다.<sup>1)</sup>

갈뱅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절대 초월적 하나님이시다. 갈뱅은 하나님의 절대 초월성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전적 타자성을 중요한 원리로 하여 그의 신학을 전개하였다.<sup>2)</sup>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거룩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이 양자 사이의 구별을 통해 갈뱅은 하나님 주권 사상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그의 신학 전체를 형성하여 나갔다.

갈뱅에 따르면,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에게 알려질 수 없으며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갈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정신에 완전히 파악될 수 없다.”<sup>3)</sup>

“인간이 매일 보는 태양의 본질도 확실히 규정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해 능력에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이 어떻게 규정될 수 있겠는가? 실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하면서 어떻게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조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식을 하나님 자신에게 기꺼이 맡기자.”<sup>4)</sup>

따라서 “하나님은 그가 우리의 수준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경우가 아니고는 이해될 수 없는 존재이다.”<sup>5)</sup> “그는 우리에게 말 거실때 자신을 우리의 능력에 적응시킨다.”<sup>6)</sup> 우리의 수준에 적응시키는 이 하나님의 계시와 더불어 갈뱅의 신학은 시작된다. 기독교 강요가 처음부터 존재나 실존에 관한 사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부터 시작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sup>1)</sup> A. Mitchell Hunter, *The Teaching of Calvin*, Fleming H. Revell Company, 1950, p.49.

<sup>2)</sup> F. Wendel, *Calvin*, The Fontana Library, p.151.

<sup>3)</sup> Com. Rom. 1:19, Dowey, op. cit., p.4 재인용.

<sup>4)</sup> Inst. I. 13. 21(이하 Inst.는 생략함)

<sup>5)</sup> Com. Ez 9:34, Dowey, op. cit., p.4 재인용.

<sup>6)</sup> Com. I Cor. 2:17, Dowey, Ibid., p.4 재인용.

이와같이 갈뱅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 사이에 구별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대한 초석을 든든히 함은 물론 신인 식론의 적용의 성격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갈뱅에 있어서 하나님은 실로 모든 만물로부터 절대거리와 구별을 가지실 뿐 아니라 동시에 모든 피조물에 깊이 관계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갈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형성하신 것 같이 그의 무한하신 권능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그의 지혜로써 다스리시고, 그의 은혜로써 보존하시며 특히 공의와 심판으로 인류를 주관하시며 자비로 용서하시고 보호로써 방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빛과 지혜와 공의와 권능, 정직 참된 진리 어느 하나라도 극히 작은 것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고 그에게 원인을 두지 않는 것이 없다.”<sup>7)</sup>

여기서 우리는 갈뱅이 하나님의 주권성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갈뱅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추상적이고 냉혹한 전능자의 주권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인 동시에 자애로운 아버지의 주권인 것이다. 그러므로 영광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자애로운 아버지의 주권에 대한 심오한 인식을 가진 자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지 않는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갈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자로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가 창조한 만물에 대한 섭리가 그의 손 안에 있고,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과 우리는 실로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 가운데 길러지고 양육되어지는 그의 자녀 들임을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서만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을 기대해야 하고 또한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sup>7)</sup> I. 2. 1.

부족함 없도록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하며 또 우리의 희망을 그분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 두어서도 안된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와 선의 유익함에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노력하자.”<sup>8)</sup>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주와 아버지로 알기 때문에 그는 또한 만사에 있어서 그의 주권을 깨닫고 그의 위엄을 경외할 뿐 아니라 그의 영광을 드높이려고 애쓰며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sup>9)</sup>

또한 갈뱅은 “하나님에게 헌신한 우리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생각하거나 말해서도 안되고 일을 계획하거나 수행해서도 안된다”<sup>10)</sup>고 까지 말한다.

이제 우리는 갈뱅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행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갈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음의 사실 즉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서 빛난다. 하나님은 실로 그의 영광을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 그가 매일 행하시는 모든 심판들을 통해 나타내신다. 동시에 그의 영광은 주로 다음의 사실 즉 그가 죄인들에게 자비로우시고 그들과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당하신다는 사실, 게다가 그는 비참한 죄인들을 그와 화해하도록 허락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에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서 빛난다.”<sup>11)</sup>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조차도 드러난다.

“하나님의 해야될 수 없는 선하심은 장엄한 극장(창조세계)에서 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도 온 세상 앞에 돋보인다. 실로 하나님의 영광은

<sup>8)</sup> I. 14. 22.

<sup>9)</sup> I. 2. 2.

<sup>10)</sup> III. 7. 1.

<sup>11)</sup> CR. 43 : 428, Leith, op. cit., p.39.

높거나 낮거나 모든 피조물 속에서 빛나지만, 사태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인간의 정죄가 공포되어 죄가 지워지고 구원이 사람들에게 회복되어진 십자가, 요컨대 온 세상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선한 질서로 회복되어진 그 십자가에서 보다 더 밝게 빛났던 곳은 없다”<sup>12)</sup>

하나님의 영광이 주로 그의 구속적 은총 속에서 빛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을 노예적 복종으로 짓누르는 무정하고 잔인한 사실이 아님을 의미한다. 오히려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궁극적 사실이 능력일뿐 아니라 구속적 은총임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바, 양자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갈뱅은 확신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갈뱅의 신학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근본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임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갈뱅의 신학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라고 할때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sup>13)</sup> 또는 성령의 신학<sup>14)</sup>이라는 말과 결코 대립되거나 상치되는 개념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도 그럴것이 갈뱅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셋(성부, 성자, 성령)의 비추임을 받지 않고는 하나를 생각할 수 없고 동시에 하나를 생각하지 않고는 셋의 구별을 할 수 없는”<sup>15)</sup>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sup>16)</sup> 성령의 역사없이 하나님의 역사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때문이다.

<sup>12)</sup> CR. 47 : 316, Leith, Ibid.

<sup>13)</sup> Niesel이나 Wendel은 갈뱅의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sup>14)</sup> Warfield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갈뱅의 전생애의 2대 원리이다. 그런데 이 두원리는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라고 말한다. (워필드, 칼빈루터어거스틴, p.41)

<sup>15)</sup> I. 13. 17.

<sup>16)</sup> CR. 55. 226, Niesel, 칼빈의 신학, p.33.



## 2. 경건의 신학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칼뱅신학의 특징은 추상적 교리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깊은 신앙심 곧 경건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칼뱅신학의 하나님 중심주의는 그의 삶과 신학의 경건적 특징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맥닐이 말한대로 “그의 정신적 열정의 비밀은 그의 경건에 있다”<sup>17)</sup> 워필드가 옳게 지적했듯이 “신학자로서 칼뱅의 제일가는 특징은 그의 실제적 관심이 그의 모든 사상을 지배하는 깊은 신앙심에 있었다는 점이다. 그의 신학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sup>18)</sup>

이와같이 칼뱅의 신학에 있어서 경건은 그의 신학특성의 그 기초(key-note)였으며<sup>19)</sup> 그의 신학 작품들 모두가 그런 특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무엇보다 먼저 “기독교 강요는 경건의 모든 분량과 구원의 교리 중에서 알아야 할 것을 모두 담고 있는 책이며 경건에 열심 있는 모든 사람이 읽을 만한 책”<sup>20)</sup>임을 칼뱅 자신이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기독교강요 서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앙이나 경건이 없는 곳에서는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20-1)</sup>

그의 주석 책들은 칼뱅자신의 영혼의 심오한 경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그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의 성경 해설에서 참된 영적 유익을 빼앗아가는 냉정한 학구적 기질이나 인격적 무관심이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sup>21)</sup>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무엇인가? 칼뱅은 경건을 다음과

<sup>17)</sup> Custance, 칼빈의 교리신학, 기독교문화 협회, p.111.

<sup>18)</sup> B. B. Warfield, 칼빈·루터·어거스틴, 기독교문화협회, p.40.

<sup>19)</sup> Hunter, op. cit., p.296.

<sup>20)</sup> Custance, op. cit., p.108.

<sup>20-1)</sup> I. 2. 1.

<sup>21)</sup> Hunter, op. cit., p.36-37.

같이 정의하고 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애써 피하려는 두려움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주님으로서 두려워 하며 존경하고 그의 의를 붙잡고, 그를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나쁜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 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진실한 감정속에 존재한다. 이 경건을 부여받은 자는 무모하게 그 자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감히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으려 그가 보여주고 알려주는 대로 그를 이해한다.”<sup>22)</sup>

칼뱅은 기독교강요에서 보다 간결하게 경건을 “그의 은혜의 지식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결합된 존경”<sup>23)</sup>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가지 개념에 상응하여 경건의 내용이 규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경건이란 주님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존경심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갖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란 개념을 통해서 칼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칼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신실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생기는 존경심으로 지혜의 근본이다.”<sup>24)</sup>

“이 경외감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지배되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고 무엇보다도 그의 선하심과 자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진실로 그와 연합되기 위한 존경심으로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5)</sup>

<sup>22)</sup> John Calvin, Catechism(1537), Ford L. Battles “True piety according to Calvin”,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p.192.

<sup>23)</sup> I. 2. 1.

<sup>24)</sup> Samuel Dunn, The Best of John Calvin, 김득용, 요한 칼빈의 신학 진수, 성광문화사, p.150.

<sup>25)</sup> Ibid., p.153.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그에게 영광 돌리기만을 바라고 전적으로 그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하다.”<sup>26)</sup>

이상에서 우리는 경건이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갖는 인간의 바른 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칼뱅에 있어서 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서의 경건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들에 대한 태도이기도 한 것이다.<sup>27)</sup> 맥닐은 경건의 수평적 차원에 대해 말하길 “칼뱅주의자의 경건은 가족과 이웃에 대한 매일의 관심과 교육의 문화, 그리고 사업과 정치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 동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에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칼뱅의 생각이다. 하나님에 대한 칼뱅의 경외심은 세속적인 문제들에 대한 그의 관심을 조금도 덜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칼뱅은 경외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일상사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기를 주장하였다”<sup>28)</sup>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칼뱅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건은 형제 사랑보다도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긴 하지만<sup>29)</sup> 칼뱅의 경건 이해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잘 통합됨으로써 수도원적 경건주의적 경건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칼뱅의 교리의 원천은 주로 사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는 신자로서의 종교적 확신 곧 경건임을 누구나 확인하게 된다. 요컨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신앙의 표현으로서 경건은 칼뱅신학에서 근본적인 요소이다.<sup>30)</sup>

<sup>26)</sup> Ibid., p.154.

<sup>27)</sup> John H. Leith, John Calvin The Christian Life, 1984, p.16.

<sup>28)</sup> John T. McNeil, “칼빈과 시민정부”, 기독교문화협회,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 p.280.

<sup>29)</sup> J.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칼빈의 영성, 기독교문화협회, p.168.

<sup>30)</sup>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p.108, 109.

### 3. 성경 중심의 신학

칼뱅은 사변적 신학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신학자였다. 칼뱅이 성경적 신학자가 되고자 의도하였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는 그가 자신의 유언에서 자신을 “제네바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칼뱅”이라고 칭한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알트하우스가 루터의 신학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루터의 모든 신학적 사고는 성경의 권위를 전제하나 그의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려는 시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그의 신학 형태는 근본적으로 주석(학)이다.”<sup>31)</sup>

이 말은 칼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다. 칼뱅에 있어서도 그의 신학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모든 신학적 사고와 언어의 규범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권위이다.<sup>32)</sup>

칼뱅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진정한 기록이다.

“사도들은 성령의 확실하고 진정한 필기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록들은 하나님의 신탁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sup>33)</sup>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성경을 경외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며 인간적인 기원이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sup>34)</sup> “인간이 스스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본래적 저자이다”<sup>35)</sup>

이처럼 칼뱅은 성경의 신적 기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sup>31)</sup> K. Runia, The Hermeneutics of the Reformers,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19, No.2 Nov. 1984. p.124 재인용.

<sup>32)</sup> Leith, op. cit., p.18.

<sup>33)</sup> IV. 8. 9.

<sup>34)</sup> CR. 52 : 383, Leith, op. cit., p.58.

<sup>35)</sup> Com. on 2 pet. 1 : 20 ed. W. P. Armstrong, 칼빈의 종교개혁사상, 기독교문화협회, 1986, p.170.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거기에서 들 수 있는 것처럼 읽었다.<sup>36)</sup> 그런데 칼뱅에 있어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제도가 권위가 있다고 말할 때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 논증으로 그 권위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개개인이 설득을 받을 때에만 성경은 권위를 가진다. 이 설득은 “성령의 내적 증거(testimonium internum spiritus sancti)”의 결과임에 틀림이 없다. “외적 말씀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생명이 불어 넣어지지 않고는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때 행위의 모든 능력은 성령 자신에게만 귀속된다. 그러므로 모든 찬양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아가야 한다.”<sup>36-1)</sup> 물론 이때 성령의 증거는 새로운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자에게 그의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칼뱅이 말하는 성경의 신적 권위란 성경의 문자주의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내적인 성령의 증거와의 밀접한 상관성 안에서의 성경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칼뱅은 이런 성경의 신적 권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구든지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참되고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지극히 적은 부분 조차도 얻을 수 없다.”<sup>37)</sup>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의 확실한 규칙을 찾아 우리의 사유와 언어가 그에 합치되도록 해야 한다.”<sup>38)</sup>

칼뱅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수단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이 계시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신다.

<sup>36)</sup> I. 7. 1.

<sup>36-1)</sup> CR. 40 : 61~62, Leith, op. cit., p.63.

<sup>37)</sup> I. 6. 2.

<sup>38)</sup> I. 13. 3.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는 거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홀이며,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지팡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띠로 결합하기 위한 그의 결연의 도구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우리의 양심 안에서 안식을 갖게하는 그의 선한 의지의 증거이다. 그것은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기르기 위한 우리 영혼의 유일한 목장이다.”<sup>39)</sup>

이런 이유로 칼뱅은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훈련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추천했다.<sup>40)</sup> 사실 칼뱅에 있어서 신학 작업이란 신구약 성경에 대한 유익한 읽기를 위한 열쇠요 통로였다. 이런 점에서 그의 “기독교 강요”는 웅장한 신학적 체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성경읽기를 위한 지침서라는 평범한 목적으로 쓰여졌던 것이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1559년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저작을 내놓는 나의 목적은 거룩한 신학 지망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준비시키고 그것을 훈련하려는 것이다.”

칼뱅은 분명히 성경의 범위 안에서 신학을 영위한 신학자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외에는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우리의 거룩한 규칙으로 삼자. 즉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외에는 그것(예정론)에 대해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하자. 주께서 그의 거룩한 입을 닫으실 때 우리도 또한 가던 길을 멈추고 더 멀리 가지 않도록 하자.”<sup>41)</sup>

요컨대 칼뱅의 신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에 근거를 두고 그 성경의 범위 안에서만 신학작업이 이루어졌던 성경 중심의 신

<sup>39)</sup> CR. 9 : 823, Leith, op. cit., p.56.

<sup>40)</sup> CR. 11 : 735~736, 18 : 313, Leith, op. cit., p.56.

<sup>41)</sup> Com. Rom. 9 : 14, J.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4, p.193.

학이었다.

#### 4. 역동적 균형의 신학

니젤은 갈뱅의 사고의 형식 구성이 그리스도론 뿐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교리에 있어서 칼케돈신조에 입각하여 조절되어 왔다고 주장한다.<sup>42)</sup> 칼케돈 신조의 특징이란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양성이 구별은 있으나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바로 이 특징이 갈뱅의 신학에 있어서 기독교론뿐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교리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의 신학에 있어 대립개념들 내지는 상응 개념들이 상호간에 역동적 균형을 이루면서 신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신학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맥킴이 옳게 지적했듯이 “모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이러한 역동적 양극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부재와 현존, 무와 무한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것이며 완전한 이해를 향해 나가지만 이 생애 동안에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것을 말한다.”<sup>43)</sup> 갈뱅은 이런 기독교 진리의 양극적 개념 사이에서 양자(대립개념들 내지는 상응 개념들)를 다 포괄하면서(통전성) 양자의 긴장관계를 합리적 논리성으로 해소시키지 않는 역동적 균형의 신학을 영위했다고 보여진다.<sup>44)</sup> 여기서 역동적이란 말은 갈뱅신학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균형의 개념이 대립 내지는 상응하는 개념들 상호간의 산술적 중간치의 개념 또는 절대균형의 개념이 아님을 나타내고자 사용된 용어이다.

<sup>42)</sup> Niesel, 칼빈의 신학, p.243-244.

<sup>43)</sup> Donald k. Mckim, “John Calvin: A Theologian for an age of Limits”,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pp.284-195.

<sup>44)</sup> 김이태교수는 1981년 3월에 장신대 신학의 입장을 “가(邊)가 아니라 중심에서 신학”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특징을 ① 포괄적이다. ② 긴장속에 있다. ③ 선풍적이지 아니라 점진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장로회 신학대학의 신학 노선 pp.45-73).

우선, 갈뱅 신학에 있어서 대립 내지는 상응하는 개념들을 열거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신인식과 인간의 인식),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성령과 말씀, 구약과 신약(율법과 복음), 칭의와 성화, 신앙과 회개, 신앙과 행위, 영적통치와 세상적 통치, 현세와 내세 등이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교리를 다 상세하게 다룰 수 없다. 다만 개략적 특징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전술했듯이 갈뱅에 있어서 하나님은 “셋의 비추임을 받지 않고는 하나를 생각할 수 없고 동시에 하나를 생각하지 않고는 셋을 구별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갈뱅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한다. “존재양식(위격)은 본질과 불가분하게 연합되어 있으나 본질과 구별되는 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45)</sup> “구별이 문제이지 분리가 문제인 것이 아니다.”<sup>46)</sup> 이처럼 갈뱅은 삼위일체론을 칼케돈신조의 계시의 사실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균형이다. 전술했듯이 갈뱅에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절대주권을 가지신 초월적 하나님이시다. 무한자 하나님의 절대 초월성과 유한자 인간의 제한성의 이 절대적 거리를 흐리게 하는 어떤 시도도 갈뱅에게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초월적 하나님은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절대 초월적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모든 피조세계를 보존하시고 그의 주권적 뜻을 따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이처럼 갈뱅에 있어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은 역동적 균형 속에서 진술되고 있다.

<sup>45)</sup> I. 13. 6.

<sup>46)</sup> I. 13. 17.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문제 만큼 서로 대립적인 주제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말할 수 없게 되고, 인간의 자유를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 등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뱅은 이 양자를 모두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갈뱅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주장한다. 다른 한편, 그는 하나님이 죄의 저자가 아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자신의 결정으로 타락했다고 확신한다. 분명히 갈뱅은 이 두 근본 확신을 결합시킬 수 없었지만 합리적 논리성을 위해 어떤 하나를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았다.<sup>47)</sup>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나, 갈뱅은 의지의 기능과 선악을 선택하는 의지의 능력과를 구별시킴으로써 의지의 노예와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주장하려고 했다. 갈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전히 의지의 기능(faculty)이 남아 있다. 그것은 죄를 향하여 돌진하려는 강한 경향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필연성에 자신을 복종시킬 때 인간은 그의 의지를 박탈당하는게 아니라 의지의 건진성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이다.”<sup>48)</sup>

이 근거에서 갈뱅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주장한다.<sup>49)</sup>

갈뱅신학에서는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양자를 분리시켜 성경만을 유일한 계시의 통로라고 생각하는 객관주의나 성령만을 유일한 계시의 통로라고 생각하는 주관주의가 모두 배격되고 있다. 갈뱅은 “말씀이 없이 성령을 말하는 것이 무분별한 것처럼 성령이 없이 말씀을 입에 가져오는 것도 허구한 일이다.”<sup>50)</sup> “신의 주권이 성

<sup>47)</sup> Leith, op. cit., p.140.

<sup>48)</sup> II. 3. 5.

<sup>49)</sup> CR. 6 : 279, Leith, op. cit., p.141.

<sup>50)</sup> O. S 1. 466, Niesel, 칼빈의 신학, p.37 재인용.

취되려면 양자 곧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공존해야 한다”<sup>51)</sup>고 말한다. 이처럼 갈뱅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역동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갈뱅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가 조각조각 나누일 수 없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 동시에 그리고 서로 결합된 것으로 받아 들이는 두가지 은총 즉 칭의와 성화는 서로 떨어질 수 없을 것이다”<sup>52)</sup>

“우리는 이 둘(칭의와 성화)을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가지를 자신에 있어서 불가분리의 것으로 결합한다.”<sup>53)</sup>

결국 갈뱅은 양자를 결코 혼동시키지도 않고 분리시키지도 않음으로써 구원의 은총성과 구원 받은 자의 성화의 과제를 역동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이렇게 갈뱅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도 역동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갈뱅이 취하는 역동적 균형의 태도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배틀즈는 갈뱅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정도에서 벗어나 버린 로마 카톨릭과 일순간에 온전함이 가능하다고 급진적 주장을 하는 재세례파의 양극단 사이의 중간 입장에서 서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54)</sup> 이에 대해 맥킴은 “이것은 그의 모든 근본적 사고 개념이 거뒀던 양극단 사이의 참된 중간이라는 긴장의 한 범위 안에서 정리되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5)</sup>고 말한다.

갈뱅은 지나친 빈곤과 지나친 부의 양극단, 현재의 삶에 대한 무절제한 방종, 탐욕, 사치와 지나친 엄격성이나 금욕주의 사이의 양극단 사이에

<sup>51)</sup> C. R. 45. 197, Niesel, 칼빈의 신학, p.36 재인용.

<sup>52)</sup> III. 11. 6.

<sup>53)</sup> III. 16. 1.

<sup>54)</sup> F. L. Battles, “True piety according to calvin”, ed. D. K. Mckim,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p.202.

<sup>55)</sup> Ibid., p.293.

역동적 균형의 태도를 취한다.<sup>56)</sup> 갈뱅이 이러한 현재적 삶에 대한 균형적 태도는 미래의 삶에 대한 전망 속에서 이루어 진다. 베른레가 지적했듯이 하늘과 땅의 이 긴장은 갈뱅의 윤리의 주요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sup>57)</sup> 갈뱅의 경제관에 대한 비엘러의 지적도 갈뱅신학의 “균형”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갈뱅의 경제관은 개인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적 개인주의라고 호칭할 수 있다. 갈뱅은 한편으로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 전체의 필요를 존중하는 두 극 사이에서 항상 새로운 균형을 이룩하기 위해 애썼던 것이다.”<sup>58)</sup>

이상에서 우리는 갈뱅의 신학이 어느 한 요소를 절대화하는 나머지 다른 요소를 희생시키는 부분 신학이 아니라 상응내지 대립하는 개념들을 통전적으로 포괄하면서 상호간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통합신학임을 확신하게 된다.<sup>59)</sup>

##### 5.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신학

갈뱅은 신학을 교회의 덕(edification)을 위해 고안된 실천적 학문으로 간주한다. 갈뱅에 있어서 신학은 이론적 학문이 아니라 실천적 학문이다. 아퀴나스의 신학이 이론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하면 갈뱅의 신학은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갈뱅에 있어서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인간의

<sup>56)</sup> III. 19. 7. III. 20. 46.

<sup>57)</sup> Leith, op. cit., p162.

<sup>58)</sup> André Bié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홍치모 역, 갈뱅의 경제윤리, 성광출판사, 1985, p.42.

<sup>59-1)</sup> 맹용길 교수는 다음 논문에서 통합신학을 주창하고 있다. 맹용길, “통합신학-개요”, 교회와 신학, 제18집, 1986, 장신대출판부.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실제적 문제에 직접 관계가 없는 문제들은 갈뱅에게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sup>60)</sup>

갈뱅이 기독교강요와 주석서들을 저술하는 목적을 보면 그의 신학이 그의 삶의 자리 곧 교회와 사회에서 요청되어진 문제들에 대한 목회적 응답으로서 이루어진 실천적 학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기독교 강요는 성경 읽기를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외에 1534년부터 1535년까지 복음주의자들을 박해했던 프란시스 I 세 앞에서 부흥주의자들과 복음주의 신학을 변호하는 것이었다.<sup>61)</sup> 갈뱅의 성서주석들도 당시 교회의 신도들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말씀이 더 적절하게 요구하고 있었는가 하는 사정을 살피서 집필되어 나간 것이었다.<sup>62)</sup>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갈뱅의 신학은 삶의 전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의 실현을 위한 신학이었다. “신학은 인간의 삶과 사회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형성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sup>63)</sup>

갈뱅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의 실현이 개인적 경건의 영역 안에 한정되거나 교회 안에 제한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실현 되어져야 할 장소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개체적 존재로서 인간을 만날 뿐만아니라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만난다. 하나님의 주권은 개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는 구원의 경험으로서 신적 요구로서 인간을 만나며,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는 사회를 위한 신정적 이상으로서 인간을 만난다.<sup>64)</sup> 갈뱅은 모든 시민적, 상업적, 정치적 질서에 있어서 제네바를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시키려고 했다.

<sup>59)</sup> Leith, op. cit., p.19.

<sup>60)</sup>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장신대 출판부, 1984, p.264.

<sup>61)</sup> 김정준 외,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한신 출판부, 1978, p.73-74.

<sup>62)</sup> Leith,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John Knox press, 1978, p.106.

<sup>63)</sup> R. E. O. White, Christian Ethics, John Knox press, 1981, pp.186-201.

갈뱅은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실현을 추구하고자 한다. 먼저 갈뱅은 “국가 질서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제정을 떠나서는 자체의 가치를 전혀 가지지 못한다”<sup>64)</sup>고 이해함으로써 국가 통치의 신적 기원을 분명히 한다.

갈뱅에 있어서 국가 통치의 역할은 루터보다 더욱 적극적이다. 루터에게서 국가 통치는 대체로 악을 억제하는 부정적 임무를 가지는데 반해 갈뱅에 있어서 위정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다.<sup>65)</sup> 갈뱅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통치의 적극적인 임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 통치는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경건에 관한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고 우리를 사회 생활에 적응 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하며 전반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시켜야 한다.”<sup>66)</sup>

경제 및 물질의 영역에서도 갈뱅은 하나님을 떠나 허황된 자유를 추구할 때 생겨지는 인간의 죄악상을 직시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서 인간은 재물을 선용할 의무가 있음을 갈뱅은 강조한다.<sup>67)</sup> 갈뱅만큼 재물과 노동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sup>68)</sup>

이제 우리는 갈뱅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트렐치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sup>64)</sup> C. Jungen, 김형익, 이승미 역,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 실로암, 1989, p. 24.

<sup>65)</sup> Ibid., p.32.

<sup>66)</sup> IV. 20. 3.

<sup>67)</sup> 비엘러, op. cit. p.62.

<sup>68)</sup> Ibid. p.111, 경제 및 사회 사상에 대한 갈뱅 자신의 훌륭한 요약 내용이 비엘러의 책(pp.112-114)에서 인용되고 있다.

“갈뱅에 있어서 교회는 단지 은혜의 객관적 수단을 제공하는 구원의 기관만은 아니다. 오히려 동시에 구원의 기관은 성화의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교회는 삶의 전 영역을 기독교적 규정들과 기독교의 목적들의 지배아래 둬으로써 공동체를 기독교화 하는데 효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동시에 교회는 공동체가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곧 교회와 국가 안에서, 가정과 사회안에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인간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지는 바, 없어서는 안될 기관들을 발전시켜야 한다.”<sup>69)</sup>

이렇게 해서 갈뱅은 그의 신학을 통해 신학의 목적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일뿐 아니라 인간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 III. 갈뱅신학의 오늘의 의미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종교 개혁자들을 단순히 역사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현대를 위한 실제적 메시지를 가진 교사들로서 간주했다. 많은 사람들은 갈뱅신학이 오늘날 인간의 상황에 많은 빛을 던져 주었다는 확신을 가진다.<sup>1)</sup>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시대와 관련하여 갈뱅신학이 갖는 많은 의미들 가운데 다만 한가지의 특성의 관점에서만 제한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한다.

#### 1. 정통교리(Orthodoxy)와 정통실천(Orthopraxis)의 통합모델

오늘의 시대만큼 일찌기 실천(praxis)을 강조하는 시대는 없었던 것

<sup>69)</sup> E.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vol. II,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p.591.

<sup>1)</sup>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p.23.

같다. 칸트 이후 진리의 실용성과 실천의 우위성이 강조되면서 기독교 신학은 신학적인 객관적 내용의 질문 대신에 실천의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배경아래 칼 맑스 이후의 기독교 신학은 세계를 다르게 해석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더욱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sup>2)</sup>

보프에 의하면 “해방신학은 실천(praxis)으로부터 출발하여 성찰하는 일, 자기들의 동맹자들과 결합된 가난한 사람들의 거대한 노력 안에서 모든 인간과 인간 전체의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자기들의 가난을 대적하여 투신하는데 있어서 신앙과 복음에서 영감을 추구하는 일이다.”<sup>3)</sup> “해방신학은 활동에서 출발하고 활동으로 되돌아 간다… 해방신학은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한 다음 마침내 구체적 실천에 도달한다. 반드시 활동으로 되돌아 간다는 점이 해방신학의 특징이다.”<sup>4)</sup>

보니노는 말하길 “마르크스의 유명한 언명에 있어서의 철학이 그런 것처럼 신학은 세계를 설명하는 것을 그만두고 세계를 변혁하는 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통 교리보다는 정통 실천이 신학의 표준이 된다”<sup>5)</sup>고 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서구 신학이 대체로 성경에서 출발하는 텍스트의 신학이라면 남미의 해방 신학은 남미라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컨텍스트의 신학이다. 또한 서구 신학이 대체로 기독교 진리에 대한 정통교리에서 출발하는 교리의 신학이라면 해방신학은 정통 실천에서부터 출발하는 윤리신학이요 실천의 신학이다.

<sup>2)</sup> J.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김균진 역,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p.20.

<sup>3)</sup> L. Boff, 김수복 역, 해방신학 입문, 한마당, 1987. pp.21-22.

<sup>4)</sup> Ibid., p.61.

<sup>5)</sup> Jose Miguez Bonino, Doing Theology in a Revolutionary Situation, pp.80-81. 고범서, 해방신학, 범화사, p.93.

바로 여기에 오늘의 신학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양상의 요인이 있다. 이러한 신학적 갈등 상황 속에서 갈뱅 신학은 양극단의 입장에 대한 하나의 통합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갈뱅의 신학은 교리만을 추구하는 이론 신학도 아니요 그렇다고 실천만을 추구하는 윤리신학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살펴 보았듯이 갈뱅의 신학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바른 가르침(Orthodoxy)을 간단없이 추구해 나가되 구체적인 교회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본문에서부터 출발하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적용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성격적이고 실천적인 신학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갈뱅의 신학은 바른 믿음과 바른행동, 정통교리와 정통실천의 이 양자가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것이나 결단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갈등하고 대립하는 오늘의 신학적 문제 상황에 대한 하나의 통합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 2. 복음화와 인간화의 통합 모델

최근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개인구원”대 “사회구원”의 대립 또는 “복음화”대 “인간화”의 대립일 것이다.

유동식 교수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크게 세가지 유형의 신학적 경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sup>6)</sup> 첫째는 보수적 근본주의 신학의 흐름(예장합동)이다. 둘째는 진보적 사회 참여 신학의 흐름(기장)이고, 셋째는 문학적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감리교)이다. 우리의 문제와 관련해서만 생각할 때, 첫째 입장은 대체로 개인 구원 또는 복음화를 주로 강조한다면 둘째와 셋째의 입장은 사회구원 또는 인간화에 치중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양자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대립될 때 전자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한 역사적

<sup>6)</sup> 유동식, 한국 신학의 광맥, 전망사, 1982, pp.28-30.



책임은 무시한 채 개인구원 지상주의 또는 내세주의로 전락하게 되고, 후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은총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외면한채 사회구원 지상주의 또는 사회운동, 인권운동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양극적인 대립상황에 대해서도 갈뱅신학은 하나의 통합모델이 되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갈뱅 신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주권적 은총과 그에 대한 인간의 수직적 응답의 차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강조면서도 동시에 이웃 인간과 사회에 대한 수평적 관계의 차원이 어느 누구에게서 보다 중요하게 강조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에게 있어서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 차원과 인간 상호간의 수평적 차원이 혼동됨이 없이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난 많은 이단들을 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성경 안에 있는 기독교 진리의 통전성과 긴장성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기독교 신학의 극단적 대립 양상도 마찬가지로 성경안에 있는 대립 개념들 내지는 상응 개념들을 역동적으로 균형있게 결합시키지 못하고 어느 한 요소만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데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여기서 생겨나는 이론들은 모두 기독교 진리에 대한 축소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갈뱅의 신학은 기독교 진리의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고 상응하는 개념들을 무시하는 모든 축소형 이론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신학이다. 다시 말하면 갈뱅의 신학은 기독교 진리의 통전성과 긴장성을 유지하는 일종의 통합 신학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갈뱅의 신학은 개인구원과 사회구원 또는 복음화와 인간화 이 양자가 대립충돌하는 한국교회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통합 모델로 제시되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IV. 맺는말

지금까지 우리는 갈뱅신학의 중심 원리의 문제를 정리한 후, 갈뱅신학의 특징을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첫째로, 갈뱅신학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과 영광 사상을 근본 특징으로 한다.

둘째로, 갈뱅 신학은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사변적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깊은 경건심에서 이루어진 경건의 신학이다. 그것은 머리에서 나온 신학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신학이다.

셋째로, 갈뱅의 신학은 현실(context)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는 상황 신학이 아니라, 성경(TEXT)에서 출발하는 성경 중심의 신학이다.

넷째로, 갈뱅의 신학은 어느 한 개념만을 중시하고 다른 상응개념을 무시하는 부분 신학, 축소형 신학이 아니라, 상응 개념들 모두를 포괄 하면서 양자간의 긴장성을 유지해 나가는 역동적 균형의 신학 또는 통합신학이다.

다섯째로, 갈뱅의 신학은 실천이 없이 정통교리만을 주장하는 죽은 정통교리의 이론적 신학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의 실현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실천적 신학이다.

이상의 특징 외에도 언급하지 않았던 요소 예컨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라면 바다가 10개라도 기꺼이 건너겠다”<sup>7)</sup> “교회의 화평을 다시 되찾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 놓겠다”<sup>8)</sup>고 선언한 갈뱅의 에큐메니칼 정신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sup>7)</sup> 이말은 갈뱅이 카톨릭 신학자들과의 대화로부터 제외당하자 트랜트 종교회의의 첫번째 결정에 대해 갈뱅이 썼던 글의 일부이다.

<sup>8)</sup> 이 말은 1552년 영국 국교회의 캔터버리 대주교의 초청을 받았을 때 표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갈뱅 신학의 이러한 특징들 가운데서 특별히 갈뱅의 신학이 역동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특성의 관점에서만 그의 신학이 오늘의 신학적 상황 속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 보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갈뱅신학이 복음적이고 성경적 신학의 진수를 보여줄 뿐 아니라 오늘날의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빛을 던져 주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 특히 갈뱅의 후예들인 우리들이 경청해야 할 말을 인용하면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갈뱅은 당시의 교회에 대해 순종의 길 곧, 사상과 행위의 순종, 사회적 및 정치적 순종의 방법을 명쾌하게 보여준 모범적인 인물이다. 권위있고 진정한 갈뱅의 후예는 갈뱅 자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갈뱅의 주인이었던 그분을 따르는 자이다.”<sup>9)</sup>

<sup>9)</sup>비엘러, op. cit., p.117.

## 土着化의 方法論과 그 課題

정 행 업(조직신학)

### 序 論

기독교 복음의 씨앗이 어떤 특정지역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를 맺기까지는 나름대로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요약해서 복음의 토착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기독교는 서양문화의 옷을 입고 동양이라는 문화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한국 문화권에 이식된 것이다. 복음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문화의 만남으로 인한 대립투쟁의 단계가 초기에 필연적으로 있었고 다음으로 조화 절충의 단계를 거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토착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면 현재 기독교가 과연 이 땅에 토착화가 되었는가? 되었다면 얼마나 되었는가? 아니면 현재 토착화가 진행되고 있는가? 한국에 기독교는 바르게 토착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 등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 바람직한 토착화의 방